



2대리구 용계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사순 제1주일 2022. 03. 06. (다해) 제231호

제1독서 신명 26,4-10 **화답송** ◎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제2독서** 로마 10,8-13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루카 4,1-13 **영성체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하느님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

건천본당 주임 | 서동완 비오 신부



사순 제1주일인 오늘 복음(루카 4,1-13)의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이 기간이 끝났을 때에 악마는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그러자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예수님에게서 물러갑니다.

공생활을 막 시작하기 전,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혹을 받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기는 예수님께 하느님 나라와 복음 선포를 위한 준비 단계인 단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래아 전도를 시작하신 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비록 악마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루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루카 4,14-15.41; 5,12-16; 8,19-21.56; 9,18-21.28-36.51-56; 10,17-20; 11,16.27-28; 12,14; 22,39-46; 23,35-39 등 참조)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혹들을 물리치신 비결은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기도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시면서도 시편의 말씀을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시편 22,2; 마태 27,46)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 유혹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실 때 아버지 하느님과 성경 말씀을 기억하셨다면, 우리도 유혹을 받을 때 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올려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필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갈라 6,9-10)



1. 씨 뿌리기와 수확

사순 시기는 우리가 회개하도록, 사고방식을 바꾸도록 초대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소유가 아니라 내어 줌에서, 축적이 아니라 선의 씨앗을 뿌리고 함께 나누는 일에서 발견하도록 합니다.

사순 시기 동안 우리는 “살아 있고 힘이 있는”(히브 4,12)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의 선물에 응답 하라고 요청받습니다.

수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이의 선의를 위하여 씨를 뿌리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애로운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선의 씨앗이 지닌 숨겨진 힘에 대한 희망으로, 다른 이들이 수확할 열매들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숭고한 일입니다”(“모든 형제들”, 196항).

2.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루카 18,1)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이 필요하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라고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은 위험한 망상입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우리 개개인과 사회의 연약함을 더욱 인식시켜 주었다면, 이번 사순 시기에 우리가 하느님 믿음에서 오는 위안을 체감하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우리 삶의 악을 뿌리 뽑읍시다. 사순 시기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육신의 단식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영을 강인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결코 지치는 법 없이 용서하시는 분임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참회와 화해의 성사 안에서 용서를 청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탐욕에 맞서 싸웁시다. 우리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애덕으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행을 합시다.**

3.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회개의 때에 하느님 은총과 교회의 친교에 힘입어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단식은 토양을 마련하고 기도는 물을 대며 자선은 비옥하게 만듭니다. 모든 이를 향한 형제애를 키우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2코린 5,14-15 참조)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되고, 하늘 나라의 기쁨을 먼저 맛보게 됩니다. 그때가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1코린 15,28)이 되실 때입니다.

구세주를 태중에 품으시고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 곰곰이 되새기신”(루카 2,19) 동정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은총을 얻어주시기를 청합시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담은 모성애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 박영수 아녜스 수녀

한 부인이 마귀가 심하게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예수님께서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으시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서 이토록 냉랭하실까. 보다 못해 제자들이 부인을 거들어 말한다. 소리치는 저 여인을 어찌 좀 해주세요. 그러나 제자들의 재촉에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만을 위해 파견되었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신다. 그러자 부인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간절히 애원한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딸을 살려 주십시오.”

아, 자식을 향한 어미의 찢어지는 아픔을 불쌍히 여기실 만도 한데 자녀들의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시니 어찌 이토록 가혹한 말씀을 하실까? 이방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일까? 아니면 자식을 향한 어미의 모성애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러시는 것일까?

예수님, 너무하신다고 말하려는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 이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어미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강아지가 된다. 이러한 부인이 나에게서는 처절하다 못해 처연한 모습으로 아프게 다가왔다. 엄마는 그랬다.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자식이 잘못될까 애태우고, 죄 아닌 죄책감에 가슴을 누르기도 하였다. 엄마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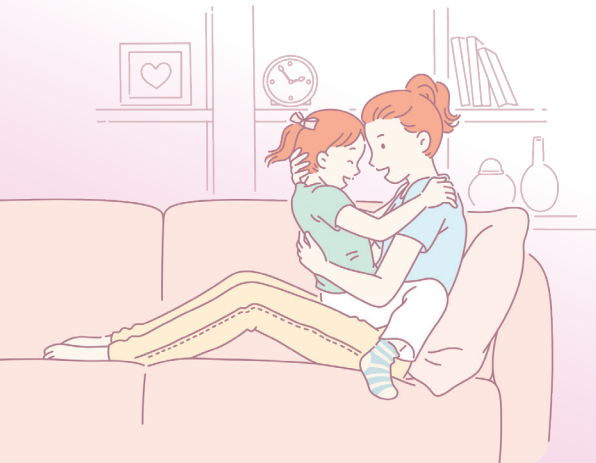
‘엄마’라고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뭉클해지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엄마를 부를 때마다 더 애뜻하고 눈시울이 붉어진다. 왜 그럴까? 그동안 나는 이십 대 초에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인 가나안 부인의 처절한 모성애를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은 헤아릴 수도, 갚을 수도 없는 무한이라는 것에 가슴이 사무쳤다.

하느님께서서는 인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어머니를 선택하셨다는 말이 있다. 자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모성애는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해 창조주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신 사랑과 일치한다. 이토록 크나큰 하느님과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며 살겠다는 고백을 엮드려 간청한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마태 15, 28) 



경기도 수원 느리지(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서 태어난 장(張) 토마스는 1866년에 순교한 장주기 요셉 성인의 육촌 형제로, 그와 함께 천주교 신앙에 대해 듣고 입교하였다. 이후 그들은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다니면서 교회 일을 도왔다. 그러다가 장주기 요셉 성인은 충청도 배론(현, 충북 제천시 봉양면 구학리)에 정착하였고, 장 토마스는 진천 배티(현,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에 정착하였다. 당시 배티에는 장 토마스의 인척으로 생각되는 장 시몬 회장이 거주하고 있었다.

장 토마스는 이때부터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뿐인 아들에게 열심히 교리를 가르쳤다. 이 무렵 가까운 인척과 친구들은, 그의 본심이 순량한 탓에 언제나 그에 대해 말할 때면 ‘착한 사람’이라고 일컬었다.

1866년의 병인박해가 시작된 뒤, 장 토마스는 많은 신자들이 체포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명령만을 따르기로 작정하였다. 그 뒤 얼마 안 되어 청주 포졸들이 들이닥쳐 그와 가족을 모두 체포하였다.

이내 진천 관아로 압송된 장 토마스는 관장 앞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때 관장이 “천주교를 배반하면 죽이지 않을 것이며, 너의 세간을 돌려주어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하자, 그는 “세간과 목숨은 버릴지언정 천주교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장 토마스
(1815 - 1866년)

얼마 지나지 않아 장 토마스는, 군대가 주둔하는 청주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을 때 다시 영장이 “천주교를 배반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묻자, 여전히 “만 번 죽어도 천주교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한결같이 대답하였다.

이윽고 토마스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포졸들은 그를 군대 지휘소가 있는 장대(將臺, 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로 끌고 나갔다. 바로 그때 장 토마스는 자기의 대자가 배교하려는 것을 목격하고는 “주님을 위하여 천주교를 봉행해 왔는데, 이런 기회를 버리고 목숨을 건진다면 장차 천주님의 벌을 어찌 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권면하였다. 그런 다음, 칼날 아래 목을 드리우고 순교의 영광을 얻었으니, 당시 토마스의 나이는 51세였다.

49. 사랑의 결실 ①

사랑은 언제나 생명을 낳습니다. “아이들은 부부애의 살아 있는 표상이고 부부 일치의 영원한 징표이며,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존재의 생생하고 불가분한 종합입니다.” 가정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하느님의 선물로 환대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새 아이라는 선물은 수용으로 시작되고 계속해서 평생 보호를 받으며 최종 목적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부모에게 아이의 이름을 선택하도록 하시어 각각의 아이를 그 이름으로 영원히 부르실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은 책임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인구학적 현실, 자신들의 상황, 합당한 욕구를 고려하여 부부의 권한으로 그들의 침범할 수 없는 자유를 지혜롭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기쁨』 165-167항)

IN PARADISUM · 천사들이여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故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 선종 1주기

추모
음악회

2022. 3. 9(수) 오후 5시
주교좌 범어대성당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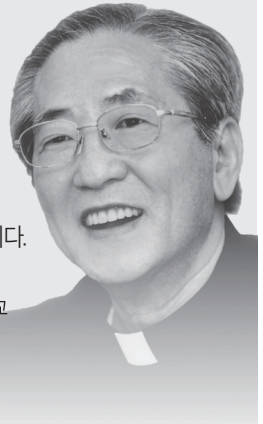
지휘_김정선 수녀
연주_뿌엘레 칸토레스(Puellae Cantores)

본 추모음악회는 교구 유튜브 채널 '천주교대구대교구'를 통해서도 생중계되오니 많은 시청바랍니다.

추모
미사

2022. 3. 14(월) 오전 11시

†가톨릭 군위요원 주례_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성모당 주례_총대리 장신호 요한 보스코 주교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단식 실천하고 자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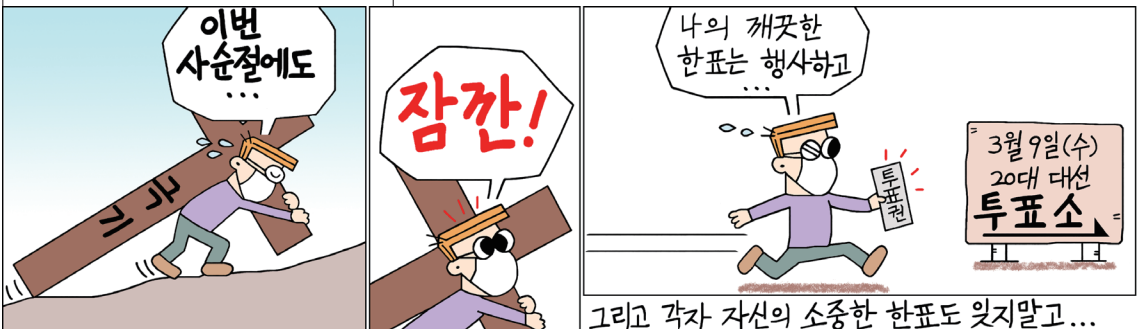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60호 정답

1. 걸어온 길, 심판, 30, 죄악, 새 마음, 새 영, 31
2. 안식일
3. 예루살렘 성전 파괴(함락, 멸망)
4.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열심히

박성규 엘리지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소중한 한표도 잊지말고...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3월 7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3월 7일(월) 19:30 꾸르실료 교육관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3월 7일(월) 11:00 계산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3월 8일(화) 11:30 계산성당
복음선교후원회 후원미사	3월 7일(월) 11:00 성모당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3월 9일(수)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3월 7일(월) 11:00 죽도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3월 12일(토) 10:00 월성성당

수도회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

일시: 3.13(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근처)

대상: 24~40세 신자(해외선교)

문의: 노혜인 선교사, (010)3817-0567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젊은이/성소자 개별 만남 및 상담

대상: 만 39세 이하 가톨릭 미혼여성

문의: 강파아 수녀, (010)3679-7198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 단체: 언제나

산내 치유 피정: 3.15(화)~16(수)

수난24일기도: 3.21(월)~4.13(수)

문의: (054)382-0091

제주 성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구역반장

날짜: 3.17~19 / 3.30~4.1 / 4.4~6

접수: (02)773-1455 / (064)796-4182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성지, 미사, 올레길·오름 트레킹

성지순례: 3.12~15 / 3.26~29

4.2~5 / 4.9~12 / 4.23~26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도미니코회봉쇄수도원 성삼일 피정

날짜: 4.14(오후)~17(오전)

대상: 만35세 미만 여성

문의: (043)651-2906 / (010)6561-2906

<http://www.dominicocorea.com>

교구 외 | 기타 알림

주일 성령 묵상회(주일 3회 과정)

일시: 3.13(일), 3.20(일), 3.27(일)

9:30~18:30

장소: 성령봉사회 월막피정의 집(고령)

비용: 12만원 / 문의: (010)9045-0191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평신도, 수도자

마감: 3.31(목)까지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기간: 3월~12월 /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7.5%

비대면심리독서모임

심리적 자기이해·영적 성장에

관심있는 분(선착순 8명)

일시: 4월(매주 수) 9:20~12:20

주최: 베네딕도상담센터

신청: 이데레사 수녀, (010)7241-2236

천주성삼병원 보험공단검진

가족행복의 시작은 국가건강검진

주소: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신매동)

일반검진, 5대 암검진

문의: 790-0660 (8:30~17:30)

국내성지순례 모집
3.14(월)~3.17(목) 인천.의정부교구 4일
3.28(월)~3.31(목) 대전교구 4일

제주성지순례 3일/4일
3.21(월)~3.24(목) 4.18(월)~4.21(목)
5.2(월)~5.4(수) 5.5(목)~5.8(일)

미카엘여행사 ☎ 010-8650-9690

이영국 비뇨기과
전립선 | 방광질환
요로결석 (쇄석술)

비뇨기과 전문의/원장 이영국(안드레아)
T 053-629-0077
감삼역3번 출구 감삼스퀘어 6층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053-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농협방향 100m)

천주교 결혼정보회사
거들 짝

26년 전통 | 초혼, 재혼
전국 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10-8880-0464
부산 051)817-3888 서울 02)3141-3888

wedmate.co.kr 이호택(야고보)

HS 익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상운(안젤로)
송정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라식, 노안렌즈, 백내장수술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과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만철(바오로)
하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신랑각시결혼

전문직·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환영
이원교(요한나) | 29년 경력

053)471-0707 | 010-2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기수(야고보) 몬시뇰
1996년 3월 12일

교구 | 대리구 알림

2022년도 예비신학교 입학 및 개학 미사

일시: 3.13(일) 14:00

장소: 남산동 대신학교 대성당

교구 모든 예비신학생을 위한 미사입니다.

학부모님도 오실 수 있습니다.

공동의 집, 지구 - 교황회칙 '찬미받으소서'로 살기2 판매

가격: 1,500원(10권이상 무료배송)

신청: 본당 또는 개인별 신청가능

문의: 가정복음화국 250-3077, 3114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취득반 모집

개강: 3.11(금) 등록 접수 중

시간: 금 18:30~22:20

토·일 13:30~21:50

자격: 19세 이상 누구나

문의: 대가대장례교육원, (010)2754-4404

대구가톨릭음악원 전공반 모집

분야: 오르간, 성악, 지휘, 시편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우들이 치유의 희망을 가지도록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143-05-000-837-8

문의: 사회사업팀, 650-3529

대구가톨릭요양원 입소어르신 모집

2018년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

직업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바리스타, 요리, 목공, 플라워,

네일, 베이킹, 반려견 교육

대상: 14~24세 청소년 누구나

수강료: 전액무료

문의: 대구청소년창의센터, 474-4840

바오로딸 3월 신앙아카데미

일시: 3.19(토) 15:00~16:30

주제: 달리는 신부의 살아있는 사람 이야기

강사: 김성래 신부님

신청: 바오로딸, (010)6681-5185

성지안내 봉사를 위한 천주교회사

일시: 3.15~6.21 매주 화 19: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사: 이찬우(다두) 신부

회비: 7만원

문의: 성지안내봉사회, (010)4300-8767

부부 둘만의 여행 대구ME주말(대면)

387차: 3.25(금)~27(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전례생활연구회 전례 공부 모임

일시: 3.14(월) 19:30

장소: 성요셉성당(월촌역 1번 출구)

주제: 성지주일·성삼일 예절

2022년 거자씨성서모임 신입생 모집

개강: 3.2(수)

구약반: (수) 10:00, (월) 20:00

신약반: (화) 10:00, (화) 20:00

심화반: (수) 10:00, (월) 20:00

문의: (010)4106-4627 / (010)7520-4627

피규린(성경인물) 성경공부반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성경공부

일시: 3.17~5.26(매주 목) 10:00~12:00

장소: 바틀로교육센터

문의: 783-9817 / (010)2889-3342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일반과정: 구약(금 10:00, 19:30)

신약(수 10:00, 19:30)

심화반: 시편(월 10:00, 19:30)

다시읽는구약성경: 역사서(수 14:30)

문의: (010)8750-6573 / (010)3475-3431

백합식품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백합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 본사 053)857-2037
서울 02)2202-8392
대구 053)257-1771

만민이 행복하다
☆일일매트출판 ☆한국인화문기 ☆온수매트
소금염착색기 게르마늄옥매트 대구출판
파크골프
초보자 모집, 레슨 / 골프채세트 - 교구특별할인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통단지 45 전자인 1층 239호

엘스텍피아보청기
HEALTHTECHNIA
청각학 박사(최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공하는 최고의 청각서비스
◆ 무료청력검사 ◆ 무료보청기상담
◆ 무료보청기적합 ◆ 청력재활프로그램
◆ 고성능, 최신행, 고품질 보청기
053)961-2525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의 김 덕 영 (스테파노)

IDEX 와이덱스 보청기 달서점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청능사/사회복지사
류(다나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재활정형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입구 1688-7667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